

한국인의 영어 발음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 요인*

전 은(군산대)

<차 례>

- | | |
|--------------------|-------------|
| 1. 서론 | 3.1. 조사 대상자 |
| 2. 발음에 관여하는 개인적 특성 | 3.2. 측정 도구 |
| 2.1. 내향성과 외향성 | 4. 분석 및 논의 |
| 2.2. 장 독립성과 장 의존성 | 5. 결론 |
| 2.3. 학습 동기 및 기타 요인 | |
| 3. 실험 방법 | |

<Abstract>

Personal Factors Affecting Korean Speakers' English Pronunciation

Eun Jun

This study examines personal factors that affect Korean speakers' English pronunciation. Personal factors which are examined here are as follows: personality type, cognitive system, motivational orientation type, interest in English, how often they listen to tapes, and academic achievement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MBTI (Myers Briggs Type Indicator) Test, Group Embedded Figural Test, and a Questionnaire. The participants consisted of 65 college students. All the results were statistically analyzed: Korean students' personality type and cognitive system are not related with their pronunciation, but motivational orientation type, how often they listen to tapes, academic achievements, and interest in English study are correlated with their pronunciation.

* Keywords: English pronunciation, Personal factors, Motivational orientation.

* 본 연구는 2004년도 군산대학교 학술 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아울러 본 논문의 심사위원 세 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1. 서론

외국어 학습이나 제 2 언어 습득 시에는 개인적 특성에 따라 개인 간에 언어 능력의 차이가 존재한다. 즉, 목표 언어에 대한 의사소통 능력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그 언어의 문법, 어휘, 발음 등에 관한 능력이 요구되며 이러한 능력에는 개인 간에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개인의 언어 능력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특성으로는 지능, 어학적 소질 등과 같은 인지적 요인과 동기, 태도, 불안감, 개인적 성향 등의 정의적 요인으로 다시 구분된다. 개인의 어학 능력의 차이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초기에는 주로 지능이나 어학적 소질과 같은 인지적 요인에 중점을 두었으나 최근에는 학습 동기, 불안감 등의 정의적 요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1][2].

본 연구에서는 제 2 언어나 외국어 습득 시 특히 발음 분야에서 나타나는 개인적 차이에 있어서 이러한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 요인에 대하여 조사하고자 한다. 개인적 특성 요인으로는 감정 이입, 언어 자아, 불안감, 동기, 내향성/외향성, 음악성, 발음에 관한 관심, 장 독립성/장 의존성 등의 요인이 거론되었다[3][4][5][6][7][8][9]. 상대방의 감정이나 상황에 주목하는 감정 이입의 정도가 좋은 발음을 획득하는 데에 관련이 있으며 특히 언어 자아 경계에서 감정 이입이 침투되는 정도와 발음의 습득 사이에 관련이 있다고 한다[3][4]. 즉 Guiora 외(1972)와 Conrad(1992)는 좋은 발음의 정도는 새로운 의사소통 체제에 대한 심리적 진입 정도와 비례하는 것으로서 제 2 언어나 외국어를 능통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제 언어 능력 중에서 좋은 발음의 획득이 심리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3][4]. 따라서 수줍은 성격, 불안감, 비 감정 이입 성향, 언어 자아의 침투력 성향이 낮은 것 등은 좋은 발음을 획득하는데 장애가 된다. 특히 불안감은 일반적으로 좋은 발음의 획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밖에 학습자의 발음에 관한 관심의 정도도 좋은 발음의 획득에 영향을 미친다[5][6]. Suter(1976)는 좋은 발음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하기 위하여 일본, 아랍, 태국 등 비영어권의 61명의 화자를 대상으로 20가지의 변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였다[5]. 영어권 나라에 살기 시작한 나이, 가정에서 목표 언어로 수행되는 대화 정도, 교실에서의 영어 수강 기간, 모국어의 종류, 동기, 발음에 관한 관심, 내향성/외향성, 성별, 원어민과의 접촉 정도 등과 관련하여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모국어, 발음에 관한 관심, 원어민과의 접촉, 거주 기간 등이 좋은 발음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5].

한편 Coats(1986)는 영어를 배우는 143명의 독일인을 대상으로 영어 발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조사하였다[7]. Coats는 음악적 소질, 동기, 내향성/외향성, 학점, 성취욕구 등과 관련해서 조사하였으며 조사 결과 음악적 재능, 동기, 내향성/외향성 등의 요인은 발음의 유창성과 관련이 없는 반면, 학점과 성취 욕구는 발음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 또한 Elliott(1995)는 장 독립성/장 의존성의

인지 양식에 따른 개인의 차이와 발음에 관한 상관성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8].

본 연구에서는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영어 발음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을 조사하고자 한다. 조사된 요인으로는 학점, 동기의 유형, 내향성/외향성, 장 독립성/장 의존성, 영어에 관한 흥미 정도, 영어 테이프를 듣는 정도 등의 요인에 관하여 조사되었으며, 자료는 2 종류의 검사와 1회의 설문지 조사에 의하여 수집되었으며 수집된 자료에 대하여 SPSS 10.0을 사용하여 통계 분석이 실시되었다.

2. 발음에 관여하는 개인적 특성

본 절에서는 외국어 발음 습득 시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 가운데 내향성/외향성, 장 독립성/장 의존성, 동기 등의 요인에 관하여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2.1. 내향성과 외향성

내향적, 외향적 성격 유형에 따라 학습 전략의 차이가 존재하며 이러한 학습 전략의 차이는 학습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10][11][12][13]. 내향성과 외향성은 널리 알려진 인성의 특성 중의 하나로서, 모든 사람은 내향성과 외향성 두 종류의 특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으며, 어느 특성이 상대적으로 더 지배적이냐에 따라서 내향적/외향적 유형으로 구분된다. 외향적인 사람들은 주로 외적 세계를 지향하고 반면에 내향성 사람들은 주로 내적 세계를 지향함으로 자신의 내부세계에 더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학습자의 내향성과 외향성의 차이가 외국어 발음 습득 시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수줍은 성격이나 높은 불안감은 내향적 유형과 좀더 관련이 있기 때문에 외향적 유형의 사람이 발음이 좋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기존의 해외 연구들을 보면 Suter(1976)에서는 일본, 아랍, 태국 등 비영어권 화자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러한 차이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5]. 또한 독일인을 대상으로 한 Coats(1986)의 연구에서도 내향성과 외향성의 요인이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7].

본 연구에서는 영어를 배우는 한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MBTI 검사를 통하여 이들의 내향성과 외향성을 판단하고 이러한 성격 유형이 영어 발음에 관련이 있는지 조사될 것이다.

1) 그러나 Thogmartin(1982)에서는 발음과 음악적 소질이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

2.2. 장 독립성과 장 의존성

인지 양식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의 정보들을 지각하고 체계화 시키는가에 대한 연구에서 비롯되었다. 개인의 차이는 지능, 적성, 흥미, 동기 등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나는데 자신을 둘러싼 외부 환경이나 사물을 지각할 때도 특정한 방식으로 지각, 기억, 사고하게 된다. 이러한 인지 양식은 개인들의 정보 처리 방식과 환경 자극에 대한 반응 양식으로서 학생들의 학습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14]. 인지 양식 중에서 널리 연구되어진 것은 **Witkin**이 발전시킨 장 독립성/장 의존성 개념이다. 장 의존성 인지 양식이란 개인이 어떤 사물을 지각하는데 있어서 그 사물의 배경의 영향을 받는 인지 양식이고, 반면에 장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인지 양식은 장 독립적 인지 양식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장 의존적 인지 양식은 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 상태로 환경을 비교적 전체적인 장 속에서 경험하고 반응하며, 복잡한 자극이 주어지게 되면 자극의 구성 요소들을 전체적인 장에서 독립시켜 지각하지 않고 주어진 그대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 장 독립적인 인지 양식은 지각 과정에서 전체적인 장의 영향을 덜 받는 상태로 환경에 대하여 보다 분석적이며 복잡한 자극이 주어졌을 때 분석적으로 지각하여 필요한 요소와 불필요한 요소를 구별하고 전체적인 장을 자신의 관점에 따라 재조직, 구조화하는 경향이 있다. 장 의존성 인지 양식은 부분적인 전체적인 장의 영향을 받는 인지 양식이고 장 독립적 인지 양식은 자극의 구성 요소들을 전체적인 장에서 독립시켜 지각하기 때문에 발음의 측면과 인지 양식을 관련시켜 볼 때 분절음 등 세부적 구성 요소 등의 발음의 특징은 장 독립적 인지 양식에서 더 주목되며 문장의 운율적 특성과 같은 큰 단위 요소의 발음 특징은 장 의존적 인지 양식에서 더 주목된다[15]. 이러한 인지 양식의 차이와 발음과의 관계에 대하여 시행된 **Elliott(1995)**의 연구에 의하면 이 두 가지 특성의 차이가 결정적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8]. 본 연구에서는 집단잠입유형 검사를 통하여 한국인 대학생 65명의 장 독립성 인지 양식과 장 의존성 인지 양식을 판단하고 이러한 인지 양식의 차이가 영어 발음에 관련이 있는지 조사하고자 한다.

2.3. 학습 동기 및 기타 요인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학습자의 동기나 태도 등의 요인은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된다. **Gardner & Lambert(1972)**는 학습자의 동기를 통합적 동기와 수단적 동기, 두 유형의 동기로서 구분하여 몬트리올에서 불어를 배우는 영어 화자인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동기의 유형에 따른 학습 효과를 조사하였다[2]. 통합적 동기란 언어를 배우는 목적이 궁극적으로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상호 교류하고 문화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며 수단적 동기란 언어를 배우는 목적이 단순

히 성적이나 취직, 또는 출세 등의 도구적 목적에 의한 것이다. Gardner & Lambert의 연구에서는 통합적 동기를 지닌 학생들의 언어 학습 성취 효과가 수단적 동기를 지닌 학생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언어 학습에서는 동기의 유형을 통합적 동기와 수단적 동기로 구분되지 않고 학습에 관한 목표 설정 상황에 따라 내면적 동기와 외부적 동기로 구분한다 [16][17]. 내면적 동기란 학습의 동기가 외부의 강요나 보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학습 활동 자체에 대한 관심이나 즐거움, 흥미에서 출발한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외부적 동기란 학습의 동기가 보상이나 외부적 규제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을 의미한다. 주로 교실에서 외국어 학습 활동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학습자의 동기에 대하여 통합적/수단적 동기로 구분하는 것보다는 내면적/외부적 동기로 구분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이다. 외부적 동기, 수단적 동기, 실용적 동기 등은 명칭은 다르나 비슷한 개념을 나타낸다.

발음과 관련하여 Suter(1976)와 Coats(1986)의 연구에서는 수단적 동기와 통합적 동기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5][7]. 그 결과 동기의 차이가 발음의 좋고 나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영어 학습에 관한 동기 유형에 관하여 내면적 동기, 외부적 또는 실용적 동기, 통합적 동기, 세 유형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며 이러한 영어 학습의 동기의 유형이 영어 발음의 좋고 나쁨에 관련이 있는지 분석되었다. 이외에도 학습자의 학점, 영어에 관한 흥미, 영어 테이프를 듣는 정도 등의 요인 등과 관련하여 설문 조사가 실시되었다. 이러한 각 요인들이 영어 발음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수집된 자료에 대하여 SPSS 10.0을 사용하여 통계 분석이 실시되었다.

3. 실험방법

3.1. 조사 대상자

65명의 2학년에서 4학년에 이르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영어발음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이들은 한국에 거주하며, 중학교 때부터 주로 학교에서 영어를 외국어로서 학습해왔으며 영어권 나라에서 거주한 경험이 없다. 학생들의 TOEIC 성적의 분포는 420 ~ 780에 이른다.²⁾ 약 5분 정도 소요되는 영어 단어 목록과 영어 구문을 읽도록 하여 이를 녹음하였다. 이를 듣고 4 명의 원어민이 각각 피험자의 발음에 관한 등급을 1 등급에서 9 등급으로 구분하여 판

2) 780점을 획득한 1 명의 학생과 420점을 획득한 1명의 학생을 제외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480 ~ 640 점의 중하위권에 속해 있다(평균은 547.46이며 표준편차는 56.40임). 그러므로 토익점수를 변수로 하여 발음과의 상관관계는 조사하지 않았다.

정하였다. 발음 등급 판정 시에 한국인의 영어 발음이 원어민 발음에 얼마나 근접한가에 관한 정도를 판정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즉, 외국인답지 않게, 얼마나 자연스럽게 발음하느냐의 유창성과 정확성을 모두 고려하도록 하였다. 9 등급은 원어민과 같은 수준의 발음을 의미하며 등급이 높을수록 좋은 발음에 해당된다. 4명의 원어민은 모두 미국인으로서 미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였으며, 일반 미어(General American English)를 사용한다. 이들은 한국의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으며 한국의 체류기간은 1년에서 5년 사이이다. 평가 결과에 대한 원어민간의 상관 신뢰도는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p < .001$), 이들 4 명의 원어민이 판정한 등급의 평균 값을 각 피험자의 발음 등급으로 채택하였다.

3.2. 측정 도구

학생들의 성격 유형을 조사하기 위하여 MBTI (Myers Briggs Type Indicator) 테스트가 이용되었다. MBTI는 인간 이해를 위한 성격 유형 검사로서 95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향성-내향성, 감각-직관, 사고-감정, 판단-인식 등 네 종류의 양극성 지표에 의하여 각 개인이 선호하는 지표를 기반으로 16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각자의 성격적 특성을 보다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네 종류의 양극성 지표 중 EI (Extraversion - Introversion) 지표가 개인이 외향성인가 내향성인가를 측정하는 지표에 해당된다. 본 연구에서는 MBTI 한국판을 사용하였으며 영어 학습자들의 내향성/외향성 성격 유형이 영어 발음과 관련이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EI 지표 자료에 국한하여 분석하였다[18].

또한 장 독립성과 장 의존성의 인지 양식을 판정하기 위하여 집단잠입도형 검사가 이루어졌다. 이 검사는 Witkin 등이 제작한 검사 도구로서 단순한 도형이 잠입되어 있는 복합 도형 속에서 단순 도형을 찾아내게 하는 테스트이다[14]. 각 문항마다 각각 다른 모양으로 제시된 복잡한 도형 안에서 그 문항이 요구하는 단순 도형을 찾아내어 선을 긋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 독립성/장 의존성 인지양식과 영어 발음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한국 실정에 맞게 표준화된 전문식·장혁표의 집단잠입도형 검사가 사용되었다[19]. 이 검사는 각각 16문항으로서 2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1, 2부 각각 10분씩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정답수(32 만점)에서 오답률(오답수/4)을 감하여 계산하였다. 결과가 14 개 이상이면 장 독립적, 7개 이하면 장 의존적으로 분류되었다.

이밖에 영어 공부에 대한 학습자의 동기의 유형, 영어에 관한 흥미 정도, 영어 테이프를 듣는 정도 등에 대한 설문 조사가 실시되었다. 각 문항은 Likert척도를 사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다섯 종류의 선택 사항 중에서 해당 사항에 표시하도록 구성하였다. 설문에 사용된 문항 내용은 (1)과 같으며, 문항 내용은 무작위 순서로 재배열되어 사용되었다.

(1) 설문 문항³⁾

- ① 영어 과목을 타 과목에 비하여 좋아하는 편이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영어 공부가 타 과목에 비하여 재미있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 ③ 영어 수업이 타 수업에 비하여 흥미롭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 ④ 영어 테이프를 듣는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 ⑤ 영어 테이프를 들을 때 소리 내어서 따라 읽는 편이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 ⑥ 영어 방송 등을 접하는 편이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 ⑦ 내가 영어 공부를 하는 이유는 취직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 ⑧ 내가 영어 공부를 하는 이유는 좋은 성적을 원하기 때문이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 ⑨ 내가 영어 공부를 하는 이유는 TOEIC 등 자격시험을 위해서이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 ⑩ 내가 영어 공부를 하는 이유는 영어 공부가 재미있기 때문이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 ⑪ 내가 영어 공부를 하는 이유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기 때문이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 ⑫ 내가 영어 공부를 하는 이유는 어려운 것에 도전하고 싶기 때문이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 ⑬ 내가 영어 공부를 하는 이유는 다른 나라의 문화와 언어에 대해 알고 싶기 때문이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 ⑭ 내가 영어 공부를 하는 이유는 영어권 사람들과 쉽게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 ⑮ 내가 영어 공부를 하는 이유는 영미권 나라의 문화에 쉽게 접할 수

3) 문항 ① ~ ③은 영어에 관한 흥미 정도를 묻는 항목이며, 문항 ④ ~ ⑥은 테이프를 듣는 정도 등 원어민의 발음을 접촉하는 정도를 조사하는 항목이며, 문항 ⑦ ~ ⑮은 학습자의 영어 공부의 동기의 유형을 묻는 문항이다.

있기 때문이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4. 분석 및 논의

조사된 전체 학생들의 발음 등급의 평균값은 약 5.5로 나타났다. 7 ~ 8 등급은 좋은 발음, 5 ~ 6 등급은 보통 발음, 3 ~ 4 등급은 서투른 발음의 등급을 나타내므로, 5.5의 등급은 보통 발음에 해당된다. 최소 등급은 3.25로 나타났으며 최대 등급은 9등급이며 표준편차는 1.25이다. 빈도와 분포는 <표 1>과 같다.

<표 1> 유창성과 정확성의 발음 등급 기술 통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유창도	65	3.25	9.00	5.50	1.25

유창도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3.25	1	1.5	1.5
3.75	2	3.1	4.6
4.00	7	10.8	15.4
4.25	3	4.6	20.0
4.50	6	9.2	29.2
4.75	4	6.2	35.4
5.00	3	4.6	40.0
5.25	7	10.8	50.8
5.50	5	7.7	58.5
5.70	1	1.5	60.0
5.75	3	4.6	64.6
6.00	8	12.3	76.9
6.25	2	3.1	80.0
6.75	2	3.1	83.1
7.00	3	4.6	87.7
7.25	1	1.5	89.2
7.50	3	4.6	93.8
7.75	1	1.5	95.4
8.00	1	1.5	96.9
8.25	1	1.5	98.5
9.00	1	1.5	100.0
합계	65	100.0	

한편 내향성/외향성에 관한 성격 유형 조사 결과 외형적 유형이 약 43%에 이

르고, 내형적인 유형은 약 5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존성/장 독립성에 관련된 인지 양식 유형에 관한 조사에서는 장 의존성 인지 양식 유형이 약 62%로 나타났고, 장 독립성 인지 양식 유형에 속하는 경우는 약 38%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를 공부하는 동기에 대한 조사에서는 실용적 동기에 의한 학습자가 76.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내면적 동기에 의한 학습자가 18.5%로 나타났으며, 통합적 동기에 의한 학습자는 13.8%로 나타났다. 내면적 동기나 통합적 동기보다는 실용적 동기에 의해서 영어를 학습하는 경우가 월등히 많음을 알 수 있다.

내향적/외향적 성격 유형에 따른 영어 발음의 차이와 관련하여 <표 2>의 기술적 통계에 의하면, 외향적 유형의 학생들의 발음 등급의 평균값은 약 5.7로 나타났으며, 내향적인 유형은 약 5.4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두 그룹의 평균 차이는 t-테스트 통계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따라서 내향적/외향적 성격 유형은 발음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일본, 아랍, 태국 등 비영어권 화자를 대상으로 영어 발음을 조사한 Suter(1976)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독일인을 대상으로 한 Coats(1986)의 연구에서도 내향성과 외향성의 요인이 독일인 영어 발음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7].

<표 2> 내향성/외향성 성격 유형과 발음 등급

	발음 등급	N	표준편차
외향적	5.69	28	1.33
내향적	5.35	37	1.19

장 의존적/장 독립적 인지 양식 유형과 영어 발음의 차이에 관한 <표 3>의 기술 통계에 의하면 장 의존적 인지 양식 유형의 발음 등급은 평균이 약 5.6으로 나타났으며, 장 독립적 인지 양식 유형인 경우 약 5.2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두 그룹의 평균 차이는 t-테스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p>.05$). 따라서 장 의존적/장 독립적 인지 양식 유형은 Elliott(1995)의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발음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8].

<표 3> 장 의존적/ 장 독립적 인지 양식과 발음 등급

	발음 등급	N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편차
장 의존적	5.59	40	1.10	.23
장 독립적	5.16	25	.878	.23

한편 영어 공부를 하는 동기의 유형과 이에 따른 발음과의 관련에 관한 기술 통계 자료는 <표 4>와 같다. 실용적 동기에 의하여 영어 공부를 하는 학습자들의 발음 등급의 평균은 약 5.13 이며, 내면적 동기에 의해서 영어 공부를 하는 학습자들의 영어 발음 등급의 평균은 약 6.46으로 나타났으며, 통합적 동기에 의해서 영어 공부를 하는 학습자들의 영어 발음 등급의 평균은 약 6.03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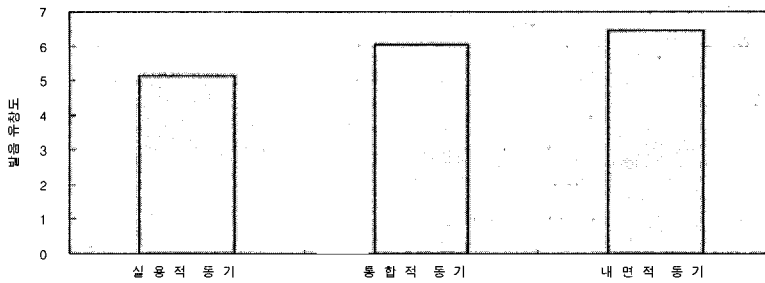
<표 4> 학습 동기의 유형과 발음 등급에 따른 기술 통계

	발음 등급 평균	N	표준편차	표준오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최소값	최대값
					하한값	상한값		
실용적	5.13	44	.99	.15	4.83	5.43	3.25	7.75
내면적	6.46	12	1.51	.44	5.50	7.42	4.00	9.00
통합적	6.03	9	1.29	.43	5.04	7.02	4.25	8.00

일원분산 분석 결과 실용적 동기에 의한 그룹, 내면적 동기에 의한 그룹, 통합적 동기에 의한 그룹, 이 세 그룹간의 영어 발음 등급의 평균 차이가 서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F(2,62)=7.496, p<.01$). 이는 학습 동기 유형에 따라서 영어 발음에 차이가 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어떤 동기를 가지고 영어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 발음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내면적 동기를 가지고 영어 공부를 하는 경우에 발음이 제일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통합적 동기에 의해서 영어 공부를 하는 경우이며, 실용적 동기에 의해서 영어 공부를 하는 경우가 제일 낮게 나타났다. 사후 검정 결과, 유의수준 $p<.05$ 에서 <표 5>에서와 같이 {실용적 그룹, 통합적 그룹} 집단과 {통합적 그룹, 내면적 그룹} 집단, 2 개의 부 집단을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면적 동기에 의한 것이 좋은 발음 획득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결과를 보인다.

<표 5> 동기 유형에 의한 부집단

	N	유의수준 <.05에 대한 부집단	
		1	2
부 집단		1	2
실용적	44	5.13	
통합적	9	6.03	6.03
내면적	12		6.46



<그림 1> 동기 유형에 따른 발음 등급

Suter(1976)와 Coats(1986)의 연구에서는 영어 학습에 관한 동기를 수단적 동기와 통합적 동기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동기의 차이가 영어 발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동기 유형을 내면적 동기, 실용적 동기, 통합적 동기 세 유형으로 구분한 것을 채택하여 조사한 결과 동기의 유형이 영어 발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5][7].

이밖에 영어 공부에 관한 흥미, 영어 테이프를 듣고 따라 읽는 정도, 학점 등의 요인과 학습자의 영어 발음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선형회귀분석이 이루어졌다. 그 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제 요인과 영어 발음 유창도와의 상관관계

요인	Pearson 상관계수	유의확률
테이프	.687	.000
학점	.608	.000
영어 흥미	.565	.000

분석 결과 영어 테이프를 듣거나 따라 읽는 정도 등 원어민 발음에 접하는 정도, 학점, 영어 공부에 관한 흥미 등의 요인이 모두 영어 발음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1$). 이는 Suter(1976)와 Coats(1986)의 연구 결과와 대략 일치된다 [5][7]. Suter에서는 모국어의 종류, 영어 발음에 관한 관심, 원어민과의 접촉 정도, 거주 기간 등이 영어 발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Coats에서는 학점과 성취 욕구 등이 발음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원어민 발음에 많이 접할수록, 학점이 좋을수록, 영어 공부에 재미를 느낄수록, 영어 발음이 좋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테이프를 많이 들을수록 발음이 좋을 것이라고 추정되어져왔는데 본 연구의 조사 결과는 이를 다시 확인시켜준다. 영어 테이프를 듣거나 따라 읽는 등 원어민 발음에 접하는 정도, 학점, 영

어 공부에 대한 흥미 등의 요인 중에서 영어 테이프를 듣고 따라 읽는 요인의 비중이 제일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학점 요인으로 나타났다. 학점은 타 성취 능력과도 밀접한 관계를 보이는 요인으로서 일반적으로 다른 수행 성취와 관련이 높게 나타난다. 그 다음은 영어 공부에 관한 흥미 요인으로 나타났다.

5. 결 론

한국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영어 발음 차이에 관련된 개인적 특성 요인에 관한 조사 결과 인지 양식 유형은 영어 발음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향적/외향적 성격 유형도 영어 발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영어 공부를 하는 동기의 유형과 발음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용적 동기에 의한 그룹, 내면적 동기에 의한 그룹, 통합적 동기에 의한 그룹, 이 세 그룹간의 영어 발음 등급의 평균 차이가 서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내면적 동기에 의한 그룹의 발음의 등급이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통합적 동기에 의해서 영어 공부를 하는 학습자들의 발음이며, 실용적 동기에 의해서 영어 학습을 하는 그룹의 발음은 내면적 동기의 그룹과 통합적 동기의 그룹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서 어떠한 동기에 의해서 영어 공부를 하느냐가 영어 발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영어 테이프를 듣고 따라 읽는 정도, 학점, 영어 공부에 관한 흥미 등의 요인이 영어 발음과 관련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어 테이프를 많이 들을수록, 학점이 좋을수록, 영어 공부에 재미를 느낄수록 영어 발음이 좋게 나타나며 이중 영어 테이프를 듣고 따라 읽는 요인의 비중이 제일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은 학점이 좋을수록이며, 그 다음은 영어 공부에 관한 흥미가 있을수록 영어 발음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영어 발음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에 관한 본 연구는 개인의 발음의 차이에 대한 이해 및 지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좀더 많은 대상을 상대로 하여 조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참 고 문 헌

- [1] J. B. Carroll, "Research on teaching foreign languages", In N. L. Gage (ed), *Handbook of Research on Teaching*, pp.1060-1100, Chicago: Rand McNally, 1973.
- [2] R. C. Gardner, W. E. Lambert, "Motivational variabl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Canadian Journal of Psychology*, Vol. 13, pp.266-272, 1972.

- [3] A. Z. Guiora, R. C. L. Brannon, C. Y. Dull, "Empathy and second language learning", *Language Learning*, Vol. 22, pp.111-130, 1972.
- [4] B. K. Conrad, *The Relationship between Empathy and Pronunciation Ability: A Study of Elementary Level College Students of German as a Foreign Languag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1992.
- [5] R. W. Suter, "Predictions of pronunciation accuracy in second language learning", *Language Learning*, Vol. 26, pp.233-254, 1976.
- [6] E. T. Purcell, R. W. Suter, "Predictors of pronunciation accuracy: a reexamination", *Language Learning*, Vol. 30, pp.271-287, 1980.
- [7] J. Coats, *Pronunciation and Personality*, Bochum, Germany: KS-Verlag, 1986.
- [8] A. R. Elliott, "Foreign language phonology: field independence, attitude, and the success of formal instruction in Spanish pronunciation", *Modern Language Journal*, Vol. 79, pp.530-542, 1995.
- [9] C. Thogmartin, "Age, individual difference in musical and verbal aptitude, and pronunciation achievement by elementary school children learning a foreign language", *Internation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Vol. 20, pp.66-72, 1982.
- [10] D. Busch, "Introversion-extroversion and the EFL proficiency of Japanese students", *Language Learning*, Vol. 32, pp.109-132, 1982.
- [11] P. L. Carrell, M. S. Prince, G. G. Astrika, "Personality type and language learning", *Language Learning*, Vol. 46, pp.75-99, 1996.
- [12] J. B. Lee, "Influence of personality traits on second language learning based on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The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Vol. 44, pp.209-237, 2000.
- [13] R. Moody, "Personality preference and foreign language learning", *The Modern Language Journal*, Vol. 72, pp.389-401, 1988.
- [14] H. A. Witkin, C. A. Moore, D. R. Goodenough, P. W. Cox, "Field-dependent and field-independent cognitive styles and their educational implication",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Vol. 47, pp.1-64, 1977.
- [15] R. C. Major, *Foreign Accent*,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2001.
- [16] E. L. Deci, R. M. Ryan,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New York: Plenum Press, 1985.
- [17] E. L. Deci, R. M. Ryan, "Human autonomy: the basis for true self-esteem", In M. H. Kernis (ed), *Efficacy, Agency and Self-esteem*, pp.31-48, New York: Plenum Press, 1995.
- [18] 김정택, 심혜숙, *MBTI 한국판*, 한국심리검사연구소, 1990.
- [19] 전윤식, 장혁표, *집단잠입도형 검사*, 서울: 코리아 테스트팅 센터, 1987.

접수일자: 2006년 2월 15일

게재결정: 2006년 3월 21일

▶ 전은(Eun Jun)

주소: 573-701 전북 군산 미룡동 군산대학교

소속: 군산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전화: 063) 469-4331

E-mail: jeoneun@kunsan.ac.kr